



1. 머리말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난해 12월 1일 기준의 가축사육통계가 발표되었다. 이에 의하면 한·육우 사육농가수는 189천호로 1년 전보다 1천호(0.5%)가 늘었고, 사육두수는 1,666천두로 1년 전보다 186천두(12.6%)가 증가하였다는 내용이다.

요즘 한우 관련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향후 한·육우 사육두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소값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중론이며 다만 사육두수와 소값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만이 있는 듯싶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지난 80~90년대의 한·육우 사육두수 및 소값 동향과 2000년대의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전개될 상황을 전망해 봄으로써 한·육우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에서 작성하였다.

2. 소값 및 한육우 사육동향

소값은 1998년에 바닥을 보인후 오르기 시작하여 2003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사육두수는 1997년 6월에 정점을 보인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년 3월을 바닥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값은 소 사육농가에 심리적 영향을 주어 사육두수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80 ~ '90년대에는 소값이 먼저 정점 또는 바닥을 보인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사육두수가 정점 또는 바닥에 도달하는 경향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소값 정점과 사육두수 바닥이 2003년에 일치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은 일반경기(經氣)하강 및 쇠고기 소비둔화로 소값 상승기가 짧아지고(9년 5년) 사육두수 감소기가 길어진데(5년 6년)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육농가수는 1985년 6월의 1,099천호를 정점으로 2003년말의 188천호까지 18년간 계속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189천호로 미약하나마 1천호가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로 농가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 또한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표1. 소값과 사육두수 동향>

(단위 : 천원, 천두)

큰소 소값 (시기)	정점	바닥	정점	바닥	정점	바닥	정점	'04.12
	1,901 (83)		1,244 (86)	3,173 (95)		2,007 (98)		3,907 (03)
사육 두수 (시점)	정점	바닥	정점	바닥	정점	바닥	정점	'04.12
	2,654 (85.6)		1,486 (90.3)		2,927 (97.6)		1,337 (03.3)	1,666

3. 한육우 사육전망

한육우 증식관련 자료들의 동향을 보면 소값이 하락할 경우 증가지표의 숫자는 점점 작아지고 감소지표의 숫자는 점점 커져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소 사육두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소 값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지표는 커지고 감소지표는 작아지는 1990년대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소 증식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사육두수 증가를 강하고 예고하고 있어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한·육우 사육두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년말 사육두수는 190만두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소값 하락기 증식관련 지표 비교〉

(단위 : %)

구분	과거				현재		
	'95	'96	'97	'98	'03	'04	
증가 지표	총 두수대비 가임암소 비율(년말)	46.9	47.1	44.6	44.5	42.0	42.3
	년초 암소수 대비 인공수정 비율(년간)	82.4	82.1	61.5	47.5	73.5	81.8
	년초 가임암소수 대비 송아지 생산율(년간)	75.6	75.4	62.4	58.1	85.1	99.4
	암송아지의 1년후 중암소 전입비율(년말)	59.4	60.5	57.9	62.9	78.9	83.1
감소 지표	년초 암소수 대비 암소 도축율(년간)	15.0	14.1	23.8	28.6	20.8	17.6
	년초 수소수 대비 수소 도축율(년간)	58.4	59.3	61.2	70.5	58.8	56.6
	암소중 비육용 사육두수 비율(년말)	?	?	2.5	4.3	1.4	1.0

4. 소값 전망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입쇠고기는 2001년 수입자유화 이후 매년 20만톤을 상회하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산 쇠고기는 소 사육두수 감소와 소값 상승의 영향으로 도축두수가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쇠고기수입이 자유화되면 소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한우값이 2003년까지 급상승을 한것은 한우고기에 대한 고정수요층이 있는 상태에서 한우고기 공급이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 표3. 쇠고기 소비 동향 〉

(단위 : 천톤)

	'97	'98	'99	2000	'01	'02	'03	'04(E)
국내산	228	260	240	212	164	148	141	140
수입	134	85	153	190	220	255	249	220
계	362	345	393	402	384	403	390	360
1인당(kg)	7.9	7.4	8.4	8.5	8.1	8.5	8.2	7.5
자급율(%)	63.0	75.4	61.1	52.7	42.7	36.7	36.2	38.9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2003년과 유사한 수준의 한우고기가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값이 제자리 걸음을 하지않고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경기 부진으로 한우고기 고정 수요층이 이탈하면서 수요가 감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도 국내 쇠고기 생산은 도축가능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도축두수 증가와함께 도축시 체중증가로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농가의 소 사육열기가 높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쇠고기는 지난 년말재고가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북미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계속되는한 육질이 떨어지는 대양주산 쇠고기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때 지난해 수준보다 밀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년도 소값은 일반경기 활성화 정도와 북미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의 변수가 있으나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전제할 경우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5. 맺는 말

현재까지의 소 증식관련 자료들을 볼때 내년 이후로도 상당기간 한·육우 사육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한우고기 생산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북미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금년 하반기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 점을 감안할때 우리정부도 일본과 보조를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년 이후는 쇠고기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 증가량을 원활히 흡수하면은 소값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원활한 흡수가 안되면 이는 곧바로 소값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쇠고기 소비는 일반경기의 활성화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이는 축산인들의 역량 밖에 일이다.

따라서 우리 축산인들의 역량내 일들중 시급히 또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면

첫째,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해답은 나와 있다. 쇠고기 브랜드 업체가 중심이 되어



사육, 도축, 가공, 판매, 홍보 등 생산제품에 대한 관리를 상도의에 입각하여 철저히 실시하면서 브랜드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방법이다. 밝고 정직한 브랜드의 자정력으로 어둡고 부도덕한 유통업체를 정화하고 선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쇠고기 생산이력제, 품종·등급·부위별 가격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 기존의 쇠고기 유통관련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이 되면서 빠른 속도의 소비자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비싸서 못 사 먹겠다」는 소리는 나와도, 소비자들로부터 「속느니 수입쇠고기 사 먹겠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한우 의무 자조금제의 조기실시 및 정착이다.

자조금 제도의 근본취지는 소비(수요)확대로 생산자는 물론 기자재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관련업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향후 증가되는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원활치 못할 경우 쇠고기 관련업계에 커다란 고통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 경기활성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고통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은 한우 의무 자조금제가 조속히 실시·정착되어 대대적인 한우고기 소비촉진 활동으로 이탈된 한우고기 소비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새로운 소비층을 창출하여야 한다.

셋째, 한우고기를 고급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우고기 생산비용이 축산 선진국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국내 여건 하에서 수입쇠고기와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우고기를 고급화하여 차별화 유통 시킬 수밖에 없다. 소값이 좋다고 느긋해하거나 등급간 가격차가 작다고 불평할 때가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 수소는 거세 장기비육을 하고 번식이 끝난 암소는 3~4개월 단기비육후 품질을 높여 출하하여야 한다. 한우산업의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해안과 오늘의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